

일 주 문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7월 20일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수행처 순례행사를 개최한다.



불교평론 7월 열린논단 조계종 교수이사리 명법 스님은 7월 18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7월 열린논단 논객으로 나선다.



평화재단 리더십아카데미 회원 모집 윤여준 평화교육원은 8월 29일까지 제 9기 리더십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한다. 수업은 9월 5일~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02)6925-0522



위안부 피해 할머니 동행 방미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7월 13~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과 함께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위안부 피해 참상을 알린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담 스님 임명

11일 임명... 상임감찰 지오·도봉 스님



지현 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조계종 총무부장에 원담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부장 원담 스님, 호법부 상임감찰 지오·도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장 수여 후 "원담 스님은 이번 33대 집행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초를 다져줬다. 임명장 받기 전까지도 특보단장 소임을 맡아 와 업무 공백 없는 최적임자"라며 "33대 집행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스님들과 총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잘 마무리해 종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총무부장 원담 스님은 무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육전암 주지, 총무원 기획실장, 총무원 총책특별단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국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호법부 상임감찰 지오 스님은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봉암사 태고선원과 고불총림선원, 남국선원 등 안거수행을 했다. 원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봉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 등 안거수행을 했으며, 어산작법학교 졸업했다. 현재 보리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군포교 활성화 윤희유 될 터”

제3대 군중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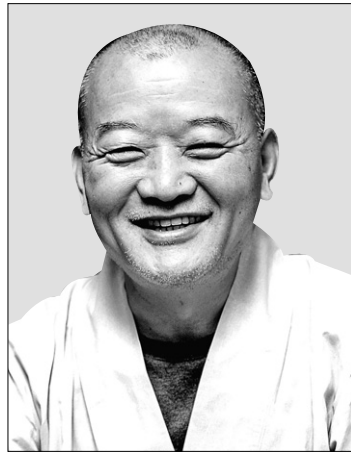
조계종 신임 군중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대 군중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서 자승 스님은 “정우 스님은 군중병으로 임대해 직접 군법당 2곳을 건립하는 등 군법사도 하지 못한 길 해낸 능력과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며 “군중교구장의 최적임자로 생각했다. 군중특별교구의 특성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임기를 마치는 2대 군중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지난 4년 동안 논산 호국연무사 대자불사를 맡아 고생이 많았다”며 “마지막까지 정우 스님을 후임으로 추천하는 등 군중교구 발전에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생각지도 못한 소임을 맡게 됐지만 미려한 힘이나마 군포교 발전에 쏟을 것”이라며 “군법사 활동의 자양분이



7월 11일 3대 군중특별교구장 임명

7월 25일 이취임식 4년 임기 시작 사병으로 군법당 2곳 건립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흥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9-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총무부장, 불교방송 이사 등을 맡은 바 있다.

스님은 도심포교를 발원해 현재 구룡사 자리인 강남 양재동에서 천막법당을 치고 기도 정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강남과 일산 등 도심지에 포교당을 건립하는 등 뛰어난 포교 원력을 발휘했다. 군포교에는 사병으로 임대해 직접 군법당 2곳을 건립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발휘했다.

정우 스님은 임명식 이후 “군중교구는 400곳이 넘는 사찰과 수많은 군법사들의 활동의 유기적 매개체”라며 “교구장으로서 법사 스님들이 일선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윤희유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또 “군법사 스님들은 조계종 소속의 구성원으로 종단과 공유하며 맡은 지역에서 범음을 전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것은 언제 어디든지 있으면 안되는 원칙으로 현장에서 이 원칙이 구현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중특별교구는 7월 25일 오후 6시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군중특별교구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님 손만 거치면 커플 똑딱

국무총리 표창 수상한 혜철 스님



“중매쟁이” 혜철 스님(충북 옥천군 대성사 주지)이 8년 동안 이어준 인연은 1260쌍.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선남선녀가 스님 턱에 손을 맞잡게 되니 이만하면 혜철 스님 손바닥에도 접촉자가 묻어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팔뚝할 만한 숫자 덕분에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국민추천 경진대회에서 ‘인연맺어주기 사업’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저출산, 농촌인력 총원 등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스님이 2005년 개설한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이라는 온라인 카페는 6개월 만에 회원 천명을 돌파했다.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의 취재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스님은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 법회를 만남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렇게 시작한 ‘인연맺어주기 사업’이 이제는 육천의 놀이 프로그램이 됐다.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 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넉넉해 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행복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스님은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팁을 전수해 달라 하자 “만남에는 희생과 봉사, 배품, 나눔이 함께 들어있다”며 “나누는 마음이 없다면 만남 또한 힘든 것”이라고 했다.

“인연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스님. 얼마 전에는 충청도와 인연맺어주기 사업을 제휴하기도 했다. ‘커플 주선자’로 나선 혜철 스님을 조만간 전국 곳곳에서 볼지도 모르겠다.

배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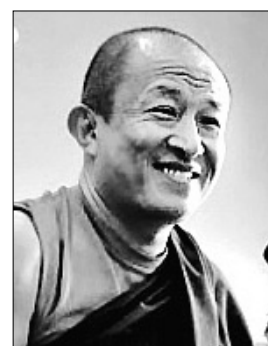
‘종사르 켄체 린포체’ 방한

영화 더컵 감독, 8월 2~4일 봉은사 등서 법문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자 티베트 불교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명인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8월 2일~4 일한국을 방문 법문을 펼친다.

스님은 이번 방문 동안 △8월 2일 오후 7시 유나방송 ‘마음의 자유’ △8월 3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 ‘일상의 명상’ △8월 4일 오전 10시 상도선원 ‘현대인을 위한 불교의 지혜’ 등의 법문으로 대중들을 만난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1961년 부탄에서 태어났고 일곱 살 때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잠양 켄체 왕포의 세 번째 환생자로 판명됐다.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불교 수행과 함께 영화 공부를 하던 중 영화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를 만나 그의 영화 ‘리틀 부다’의 고문을 맡았다. 1999년에 찍은 첫 번째 영화 ‘더 컵(The Cup)’은 동자승들의 이야기로 ‘최고의 티베트 불교 영화’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두 번째 영화 ‘나그네와 마술사(Travelers and



Magicians, 2003년)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세 번째 영화 ‘Vara, a Blessing’도 곧 개봉 예정이다.

스님은 티베트와 인도에 있는 종사르 사원 네 곳의 스님 2,000명을 돌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수행센터 ‘싯다르타의 의도를 실현 서양과 동양의 수많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육과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연꽃 활동’을 만들어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켄체 재단’도 설립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봉은사 판전 후불탱화 점안식



7월 6일 점안식을 가진 봉은사 판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봉은사(주지 진화)는 7월 6일 판전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주지 진화 스님을 비롯해 신도회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진화 스님은 점안식에서 “1856년 건립된 판전은 봉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잘 보존해야하는 문화재”라며 “판전 신중탱화 수리, 보존을 시작으로 판전 건축물에 이어 이번 비로자나불 후불 탱화의 수리, 보존을 끝으로 모든 불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주캠,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참사람봉사단(단장 이태경)은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7박 8일 동안 필리핀 알바이(Albay)주 리리가오(Ligao)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은 35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필리핀 리가오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학교 담장 페인트칠하기, 마을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한국음식 나누기, 문화공연 등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문화교류활동 등도 함께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예철우(경영학 4년) 학생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보람 있었다”며 “필리핀 어린이들과 함께 했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양양군노인복지관 특별보양식 나눔



조계종 낙산사 및 무산복지재단과 양양군노인복지관은 7월 10일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특별 보양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법 스님, 최승렬 속초경찰서장, 정상철 양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350여 어르신들은 여름 특별 보양식 삼계탕 식사를 대접과 함께 선물도 제공 받았다.

정혜숙 기자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세겨 드립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